

# 집속이온빔 (Focused Ion Beam : FIB) 장치의 국내연구현황과 전망

강승언  
광운대학교 물리학과

## 1. 서론

1970년대 초부터 이온로켓트의 추진제로 사용하려고 연구하던 액체금속이온원 (Liquid Metal Ion Source : LMIS)은 다른 이온원에 비해 이온빔의 밝기 및 에너지 광범위성과 관련된 수렴특성이 월등히 우수하여 집속이 잘된다는 특성을 알 이후, 1980년대 들어와서 이를 이용한 집속이온빔 장치 (FIB)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FIB 장치 및 이의 용용분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상황 및 미래의 전망에 관하여 분석하여 본다.

## 2. FIB 장치 및 이의 용용기술

FIB 장치는 액체금속이온원, 렌즈체계, 시료장착대, 화상처리부 및 진공체계, 그리고 이의 운용을 위한 전자제어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온원은 주로 갈륨액체금속을 사용한다. 이때 이온빔의 에너지는 15 keV~30 keV, 이온원의 수명은 400시간 정도이다. 이온빔의 집속을 위하여 2개의 정전렌즈로 구성된 집속 및 대물렌즈를 사용하고, 이때의 이온빔은 최소 집속도 500 A°, 평상가동집속도 0.1 μm의 직경을 갖는다. 경통은 독립진공체계를 유지하여 약 10<sup>-7</sup> Torr의 진공도를 유지한다. 시료대는 X,Y,Z,R 및 Tilting의 기능을 지니며, 화상처리부는 이차이온 및 이차전자를 이용한 영상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제어 조정체계는 모든 체계가 전산자동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FIB를 이용한 sub-micrometer 반도체 용용기술은 500 A°의 상의 분해도를 갖는 고분해 단면상의 관측기술, 미세가공정밀도 0.1 μm를 갖는 미세구조물의 밀링 및 절삭가공기술, 고집적 회로의 선의 연결 및 드릴링을 통한 집적회로의 수정기술, 그리고 단면의 절삭에 의한 고집적 회로의 내부구조 결함분석기술 등에 혁신적인 용용을 할 수 있다.

## 3. 국내의 연구상황 및 미래의 전망

우리나라는 광운대학교 물리학과의 FIB Laboratory에서 현재 FIB 장치의 설계, 제작 및 이의 용용에 관한 기술연구를 한국과학재단 및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과제로 수행중이다. 1993년 현재, FIB의 핵심부품인 액체금속이온원의 설계 및 제작, 이의 특성시험을 완료하여, 이에 관한 기술개발을 100%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sup>[1]-[2]</sup>. 또한 FIB의 정전집속렌즈의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의 집속특성 시험을 현재 수행중이다. 1993년도 말에는 이에 관한 최종시험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화상처리부를 연결하여 1차적으로 반도체의 표면결함분석에 관한 용용연구를 1994년부터 수행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1995년에는 FIB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이의 활용을 현재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긴밀히 상호 논의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는 모두 일본의 SEICO FIB가 9대 있으며, 이중 삼성전자 6대, 금성 반도체 1대, 그리고 현대 반도체에 각각 2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회사는 FIB 관련기술을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FIB를 이용한 Sub-micrometer 반도체 용용기술은 이에관한 인식이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표면결합분석, 집적회로의 설계 및 수정, 이온빔 리토그래피<sup>[13]</sup>, 이온빔 주입기술<sup>[14]</sup>, 그리고 공정제어기술개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M-DRAM 급의 세계 3 위 반도체 생산국으로 현재 16 M를 개발하여 생산체비를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 년에는 64M, 256M, 그리고 1 G 까지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집적화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에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국산 FIB 장비의 사용이 절실히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1 μm 이하의 초미세 구조가공용으로 사용되어 초미세 기계가 공분야<sup>[15]</sup>와 관련된 산업에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및 미국의 FIB 장비기술에 대비하여 최단시일내에 선진기술수준에 진입해야한다. 현재 FIB 의 대당 도입가격 US \$ 100만 이외에 대당 유지 보수비용이 연간 \$ 10만 이상 소요되므로 이들의 국산화로 외화의 절감 및 보수관리에 수월성을 기대할수 있다. 또한 정전형 집속렌즈기술의 확립에 따라서 주사형 전자현미경 (SEM) 의 소형화 추세에 맞는 기술개발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 4. 결론

FIB 장치는 액체금속이온원, 렌즈체계, 시료장착대, 화상처리부 및 진공체계, 그리고 이의 운용을 위한 전자제어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FIB 를 이용한 sub-micrometer 반도체 용용기술은 이온빔 리토그래피기술, 이온 주입기술, 고분해 단면상의 관측기술, 미세구조물의 밀링 및 절삭가공기술, 집적회로의 수정기술, 그리고 고집적 회로의 결합분석기술 등에 혁신적인 용용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운대학교 물리학과의 FIB Laboratory 에서 현재 FIB 장치의 설계, 제작 및 이의 용용에 관한 기술연구를 수행중이다. 최종적으로 1995 년에는 FIB 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이의 활용을 현재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긴밀히 상호 논의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강승언, 광운대학교 논문집 (1986).
- [2] 조광섭, 강승언, 용융물리 2, 16 (1989).
- [3] G. S. Cho, and S. O. Kang, J. Phys. D: Appl. Phys. 23, 85 (1990).
- [4] G. S. Cho, and S. O. Kang, J. Korean Phys. Soc. 23, 409 (1990).
- [5] 강승언, 조광섭, 김태환, 용융물리 4, 246 (1991).
- [6] 조광섭, 강승언, 용융물리 4, 257 (1991).
- [7] G. S. Cho, and S. O. Kang, IPAT Europe 8th Int'l Conf. in Brussels (1991).
- [8] G. S. Cho, Y. Seo, and S. O. Kang, Press in J. Appl. Phys. (Dec. 1992).
- [9] 조광섭, 최은하, 강승언, 용융물리 5, 611 (1992).
- [10] 조광섭, 최은하, 강승언, 용융물리 5, 616 (1992).
- [11] G. S. Cho, E. H. Choi, Y. Seo, T. W. Kim, S. O. Kang, Submitted to J. Appl. Phys. (1993).
- [12] 최은하, 안정철, 김영권, 황경환, 조광섭, 강승언, 한국진공학회 (1993).
- [13] J. S. Huh, M. I. Shepard, and J. Melngailis, J. Vac. Sci. Technol. B9, 173 (1991).
- [14] H. J. Lezec, C. R. Musil, J. Melngailis, L. J. Mahoney, and J. D. Woodhouse, J. Vac. Sci. Technol. B9, 2709 (1991).
- [15] T. Ishitani, T. Ohnishi, and Y. Kawanami, Japanese J. Appl. Phys. 29, 2283 (1990).